



도하아시안게임 개막 D-99

한국 "2위 수성하라"

金 70~75개 목표...日 거센 추격 예상

'종합 2위 수성' 목표다

2006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태극 전사들이 2008 베이징올림픽의 전초전이나 다를 없는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2인자 자리 굳히기와 중국 독주 저지...

한국의 목표는 금메달 70~75개 획득으로 8년 연속 종합 2위를 지키는 것.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2위 탈환을 노리는 일본이 한국에 아심 찬 도전장을 낸 상태.

일본이 '94히로시마 대회 때 금메달 64개가 역대 대회 최다였던 만큼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목표대로 70차례 이상 금빛 남보를 전한다면 2위 지키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와함께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아시아 최강자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세계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거침없는 독주를 어느 정도 막느냐도 한국 선수단의 고민거리다.

육상과 수영, 사격, 체조 등 '메달밭'에서 취약한 한국으로선 중국 견제가 버거운 과제인 셈이다.

45개의 금메달이 걸린 육상에서는 중국이 남자 110m 허들 세계기록(12초88) 보유자인 '황석 탄환' 류시양을 앞세워 절반

육상·수영·체조 등 '메달밭'서 선전 기대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 D-100일인 23일 오후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중인 남자 레슬링 선수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다.

에 가까운 20개 안팎의 금메달 사냥을 자신하고 있다.

남자 마라톤에 참가하는 김이용(국민체육공단), 지영준(코오롱)과 장던지기의 박재명(태백시청), 정상진(태백시청), 장정연(익산시청)을 출전시켜 메달권 진입을 타진하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가장 많은 51개의 금메달을 다루는 수

영에선 아테네올림픽 2관왕 기타지마 고스케가 이끄는 일본이 경영에서 우위를 점한 가운데 역시 아테네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다이빙 여제' 귀장징을 앞세운 중국은 다이빙에 강세를 보여 일본과 중국간 치열한 메달 다툼이 예상된다.

한국은 올해 밤태평양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아시아신기록(1분47초51)을

세우고 400m 1위로 결승점을 터치한 박태환(경기고)에게 200, 400, 1,500m에서 금빛 물살을 기대하고 있는 정도다.

또 사격(금메달 44개)도 중국의 메달 색깔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세계선수권 25m 센터파이어 권총 단체전 은메달을 합작한 'KT 3총사' 박병택과 이상화, 홍성환에 금빛 총성 기대를 걸고 있고 '클레이 여왕' 이보나(우리은행)도 트랩과 더블트랩에서 금빛 과녁에 도전한다.

체조는 중국과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하지만 아테네올림픽 때 개인종합 은, 동메달을 연기한 김대은(한국체대)과 '비운의 스타' 양태영(포스코건설)이 금메달 도약을 노린다.

태권도와 레슬링, 볼링, 사이클도 한국의 무더기 승전보가 기대되는 전략 종목들이다.

이 밖에 부산 대회 때 6개의 금메달을 딴 권상은 3차례 금빛 저르기에 도전하고 '한관승의 달인' 이원희(KRA)를 앞세운 유도(예상 금메달 3개), 효자종목 양궁, 남녀 하키(이상 예상 금메달 2개), '여자 해라레스' 장미란(원주시청)이 나서는 역도, 대회 3연패를 노리는 야구도 금빛 사냥에 힘을 보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야오밍을 막아라"

23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월드컵바스켓볼 챔피언십 1차전 중국과 세네갈의 경기에서 중국의 야오밍(가운데)이 세네갈 수비수들을 뚫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순천시청 김유선 金

실업연맹회장기 양궁 女 30m

김유선(순천시청) 제17회 한국실업연맹회장기 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유선은 23일 충북 보은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여자일반 30m에서 358점을 쏘아 올렸고, 박미경(광주시청)은 김유선에 1점 뒤진 357점으로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석 (중흥건설) 銀

김성률배 전국장사씨름 용사급

한석(중흥건설)이 제3회 확산 김성률배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석은 23일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용사급 결승에서 울산동구청의 김동희에게 0-1로 패해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임현오(중흥건설)와 박현우(중흥건설)도 용장급과 경장급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백차승 복귀전 1승 실패

백차승(26·시애틀 매리너스·사진)이 양키스 타선을 상대로 화려한 복귀전을 치렀지만 승리투수가 되지는 못했다.

백차승은 23일(이하 한국시각) 시애틀 세이프티필드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와 홈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나와 5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아내며 3피안타 3실점했다. 3-3으로 맞선 6회에 에릭 옐라리히에게 마운드를 넘겨 기대를 모았던 복귀전 승리는 불발했다.

시애틀은 5-5로 맞선 9회 말 아드리안 벨트레가 끝내기 홈런을 날려 6-5로 짜릿한 승리를 낚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강진농고 12월 축구부 창단

읍단위 축구팀 전국 최초

학교체육 활성화 큰 기대

강진농고등학교 축구부가 오는 12월 창단된다.

전남도체육회와 강진군청에 따르면 황주홍 강진군수, 허정섭 강진농고 교장, 강희철 강진중 교사와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강진군청에서 '강진농고 축구부 창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오는 12월에 축구부를 창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축구부 창단은 강진군과 강진농고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돼 결실을 보게 됐다.

이에따라 강진농고 축구팀은 전국 최초의 읍단위 고교축구팀으로 탄생하며

전국 74개 농고 가운데에서는 김해농고에 이어 두번째로 창단된다.

또한 전남에서도 광양제철고와 순천고에 이어 3번째 고교축구팀으로 창단됨에 따라 이지역 중학생들의 진학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됐다.

강진농고 축구부는 강희철 강진중 교사가 감독을 맡을 예정이며 강진중학교 출신 선수들과 전국 10개 중학교에서 스카우트한 우수선수 등 15명 내외의 선수로 구성된다.

강진군은 강진농고 축구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내년부터 연간 1억원의 예산을 강진농고 축구부에 지원하고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빠른 시일내에 합속수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4일(목)

▲메이저리그(클리블랜드-캔자스시티)

(09:00·Xports)

▲전국실업양궁선수권(14:50·KBS2)

▲제1회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 에어로빅 체육대회(14:50·MBC)

▲학산배 씨름대회(16:00·KBS SKY S-

PORTS)

▲일본 프로야구(요코하마-요미우리)(17:50·SBS스포츠)

▲프로야구(롯데-삼성)(18:30·KBS SKY SPORTS), (LG-기아)(18:30·MBC ESPN)

25일(금)

▲메이저리그(콜로라도-밀워키)(02:55·Xports)

건물매도 모든업종 최고요지 위치 광주시 동구 대외동 39-1(동부서원) 대지 136평 건평 590평 (자해충,시상충) 매도가 협의결정 연락처 010-4610-3763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내 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소문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 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 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 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총장로 대지 60평 4층건물 28억 -총장로 대지 110평 4층 27억 -구남로 도철길 70평 5층 20억 -우림동 중심시도철길 3백평 170만 -남동 대지25평 3층건물 2억 -남동동 아라파트먼트 대지30평 2850만 -평촌동 테미빌 대지20평 2억750만 -신규지구 상암지 120평 2억1000만 -주월동 광이아파트 대지2백평 2억250만 -동산동 삼익아파트 대지2백평 2억250만 -용문지구 3면도로 대지300평 한식집 2억250만 -송정동 전철역 앞 대지1000평 2억500만 -한남 우산동 상암지 2백평 9억 -한남동 아라파트먼트 대지300평 27억

LCE타워(주) 첨단지구 LCE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 이상 (금)종합학원 임대 3층 265평 A급 시설 완비 전화 상담 요망 <각층분할가능> 3층 212평 88평 가능업종:신경정형외과, 안과, 피부비뇨기과, 성형 외과, 각종 학원등 4층 300평 30평 47평 가능업종:아린이 교육 및 놀이시설, 각종 사무실등 5층 222평 114평 가능업종:스카이라운지, 호프, 당구장등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현산현 공인중개사 남·여 2명 모집중 (대) 525-0021, 친철상담 011-612-3421 경제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AAA급 깨끗한 건물 임대매각 1. 광안로47번 주유소 옆 건물총 대 지717평 임대용건물 회사사옥 사무 실문도착엔 동탄2지구 개발원산지 발전가능성이 높음지역 매매가 6억 3천주인사정상 임대매매 2. 능성동 삼광회소스 건너편 리모 델링 완료된 4층건물 대지 150 평 김평가 25억/최저가 12억 3. 화평동 테미빌렛 현제 정에서 전으로 운영중인 7층건물 대지300 평 김평가 35억/최저가 15억 대물론 받은 0포인트 5채 임대매매 1. 용문동 현대아파트 57평형 아파트 분양가 2억9천8백 49평형 분양가 2억3천7백, 대물론 받은 부동산 긴급 처분분양이므로 매매가 조정 가능 성업중인 골프연습장 임대 1. 서구 용암동 자연녹지 7,400평 인도화골프연습장, 최신시설 완비, 현재 성업중인 매매가 60억/ 주변지역 개발가능성이 높음지역 2. 화평동 6,500평 성업중인 골프연 습장 주인사정상 임대 매매가 55억 현금투자 최고지 임대매매 1.동림동-신기리 빌딩 생산녹지 1,050평 매매가 평당 40만원 공 청-창고-야채장 기타 근린시설 신축부지 적합 2.광산구 고령동, 전곡동, 하남 2채 신단 수용예정지역 1,300평 평당 15만원 2005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극장식 웨딩홀) 만족도!!(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선정기념!! 예식비 대폭인하!! 이젠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 결혼, 회갑연, 침수연, 돌잔치, 동창회모임, 각종 행사를 호월부페식으로... 예 약 675-8500 접수중 (광주대학교 입구) www.ccg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라병원에서 50m 직점. www.85858949.co.kr)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급히 구합니다> [건물] ●병원건물이나 병원으로 임대가능 건물 현금15억 ●임대 소득이 높은 상가 건물 [토지] ●전원주택부지-광주시내나 장성, 담양, 화순 ●광산구 권리지역 산도, 본방 ●광동동 2차단지 부근 토지 ●투자 가치가 확실한 토지 <급히 팝니다> ●하남 2지구 택지 준주거용지 170평 9억5천만원, 170평 9억원, 최고의 상권 ●학원, 정비공장, 식당, 창고부지 ●화곡동, 자연녹지, 424평, 25m도로에 접, 평당200만원 ●미북동 김대중컨벤션앞 생산녹지 908평, 평당180만원 ●매월동 유통단지 택지 농산물 공공장소 261평, 평당600만원 ●카센터, 식당부지 ●광산구 소촌동, 영광간 35m도로변, 140평, 평당280평 ●모텔-점대 대지 108평 건평600평 각실30개 대지10여 매도가 25억 ●물류창고부지 자연녹지, 비아 인터체인지 인근, 2400평 평당75만원(분할가능) ●창고 공장부지 210평, 평당 110만원 벽진동 주거지역 ●광주 창고부지(투자도함) 관리지역, 광산구 양산동 1800평 대형차량 진입가능 평당14만원 ●원문부지:급호동, 대지 237평, 평당 135만원 ●광송간 도로변 상가부지:61평 평당 750만원